

특집 벽화수가 피었습니다



우리꽃들이 제 각기 아름다움을 뽐내는 6월, 이천본장에서 우리꽃 축제를 개최하였다.

그 전날까지 연일 이어지는 비 소식으로 축제 당일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하늘이 도와 우리꽃을 보기 위해 찾아주신 참석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한껏 전할 수 있었다. 3호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에서도 작년에 이어 300여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참여해 주었는데 그 중 관람객에게 종사하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장난감 고위공무원, 대기업 임원진, 학계의 박사님들과 일반인들도 다수 참석했다.

뜨거운 오후, 먼 곳까지 찾아 주신 방문객에게 전하는 사회자의 간단한 인사말로 축제는 시작되었다. 이어 우리꽃 대표 인사말, 내빈소개, 축하, 감의, 벽화수 소개, 농장견학, 다리의 순으로 우리꽃 축제는 펼쳐졌다.

세계일보의 윤정로 사장님, 최주연 박사님, 경희대학교 김영태 교수님의 축사는 우리꽃 축제에 불을 밝혀 주었다. 축사에 이어 한평생 농업기술센터 조대흥 영농과장님의 꽃을 이용한 관광농업사태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강의는 특정 꽃으로 한 지역을 특화시킨 일본의 사례부터 현재 향명군이 제시하고 있는 나비 축제에 이어 꽃무릇으로 한평생 관광 농업을 성공으로 이끌어 갔었던 사례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강의로 각 지역 지자체들이 꽃을 이용에 관광농업으로 지역을 특화시키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조대흥 영농과장님의 열강에 이어 우리꽃 대표의 2008 우리꽃 축제의 메인 타이틀인 벽화수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2008 제3회 우리꽃 축제”는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과 인공 구조물의 증가로 옥상녹화, 벽면녹화, 호안녹화 등의 특수녹화에 관심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2008 제3회 우리꽃 축제”는 시멘트, 콘크리트 건축물과 인공 구조물의 증가로 옥상녹화, 벽면녹화, 호안녹화 등의 특수 녹화에 관심이 증대되는 현 시점에서 우리꽃이 연구, 개발한 벽화수를 선보이는 자리임과 동시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우리꽃이 연구, 개발한 벽화수를 선보이는 자리임과 동시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평가를 받는 자리였다. 평가를 위해 우리는 식물식재는 물론 자동점적관수까지 설치되어있는 벽화수 컨테이너와 우리밭면4호의 종자를 파종하여 생육시킨 벽화수 블록, 벽걸이를 벽화수, 기념품으로 증정된 벽화수 “동글이”를 준비하였다. 일반 20미터 컨테이너바스에 벽화수가 설치되어 노란코스모스, 프리마, 블루루드, 무늬꽃사철, 카펫주름잎, 뽕강가우라 등 각종의 식물들이 생육하는 것을 본 방문객들은 “와~ 이제는 벽에서도 꽃이 피는 세상이 왔구나!”라며 탄성을 지어내며 마을속에 자신의 꽃집을 꾸꾸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렇듯이 벽면녹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2면에 계속)

Contents

- 특집 1 벽화수, 제3회 우리꽃 축제 1,2,3면
- 2008 대한민국 조경 박람회 4면
- 대표적 조경식물/옥상, 양식 가든을 식물 5면
- 2008년 관상림종 6,7면
- 원정리포트 8면
- 원정리포트 9,10,11면
- 수종, 수변식물의 이해/그라스 스페이스 12면
- 무늬꽃 사철/독자 & 13면
- view 이이드 14면
- 종자포도밭/이성화물 이용한 생활에 지혜 15면
- 포천 특산물 16면

제3회 우리꽃 축제

우리꽃은 숙근 다년생식물과 일년생초화류의 묘종,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식물의 특성을 이용한 현장의 시공까지 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우선 현재 상업용지, 공업용지, 주거용지에 따라 건축물의 총 연면적의 10% 또는 5%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포함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져 있다.

이에 건설 교통부는 벽면녹화, 옥상녹화, 호안녹화 등을 이용해 도심 속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정을 고시하고 있다.

그 예로 건축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녹지공간으로 인정하는 조경기준이 제정·고시되어 있다. 이것은 건축물이 세워질 때 수직벽면이나 사면 등의 면적을 녹지로 이용해 실제 사용되는 심사를 면적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그 건축법에 따라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의 특수녹화의 시공 시 각 지자체에서 정책자금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으며 그 규정은 점점 더 확대되고 구체화되어가는 것이 현상이다.

이것은 이미 친환경적 측면에서 벽면녹화, 옥상녹화, 호안녹화의 특수녹화가 연간 방난방비 최소16% 이상 절감, 대기정화, 20db 이상 소음 감소 등의 효과가 증명되었다는 사실이다.

우리꽃은 숙근 다년생식물과 일년생 초화류의 묘종,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며 그 식물의 특성을 이용해 현장의 시공까지 하는 전문회사이다. 그 식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벽화수에 꽃을 피우게 되었다. 🌸



▲ 우리꽃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현장설명이 있었다. 벽화수의 장점과 특징을 제품을 보여 설명하고 있다.



▲ 벽화수에 대한 특장점 등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 우리꽃 대표



◀ 식물의 전시포장을 돌며 참가하신 분들께 특성과 현장적용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

2008 대한민국 * 조경박람회

신개발 특수녹화공법의 벽화수

한국조경사회, 환경조경발전재단, 리드엑스포의 주최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간 COEX 태평양관에서 그 화려한 막이 열렸다.

100여개의 관련업체가 참가 하였으며 7만 여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한 조경박람회였다. 그 관람객을 분석한 결과 일반인을 제외한 조경설계업 종사자들이 11.2%로 박람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경설치 및 공사업 종사자들, 교육기관 및 공무원, 건축, 건설분야 종사자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순으로 박람회에 관심을 가졌다.

첫회를 맞이했던 이번 2008 대한민국*조경박람회는 각종 신문, 잡지, 케이블방송, 인터넷방송 등의 언론매체의 폭넓은 홍보가 있었으며 각 부스마다 개인 전자카드의 인질로 방문객 없이 부스 방문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업그레이드 된 박람회를 선보이기도 했다.

우리꽃은 신개발 특수녹화공법의 벽화수를 가지고 이번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



▲ 벽화수 녹화공법을 이용해 제작된 미니하우스

상록잔디패랭이, 무늬피막이, 커뤼주름왕, 황금리시마키아, 꼬리풀 리틀블루, 가우라를 이용하여 벽화수 미니하우스의 벽면과 지붕을 피복하였다. 지붕을 피복하여 작고 아름다운 꽃집을 지었다. 금방이라도 백설공주와 난장이가 나올 것만 같다.

▲ 스탠드형 벽화수

실내 또는 실외 모두 가능한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품목. 간단하게 카페나 디스플레이용으로 가능한 스탠드형 벽화수



▲ 벽화수 녹화공법으로 제작된 개선문과 담장

박람회 이후에도 행사장의 진입로, 유치원 입구, 대형매장 입구를 벽화수 개선문으로 제작하려는 문의 전화가 많았던 품목. 빨강가우라, 노붉은필레, 상록잔디패랭이, 무늬피막이, 꼬리풀 리틀블루, 황금리시마키아, 노랑속근코스모스로 피복된 벽화수 개선문.

▼ 실내 디자인 벽걸이용 벽화수

일반 가정집과 실내인테리어 디자인 품목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많았던 품목. 용이한 물관리와 다소 음지에 생육이 강한 붉은알맹이비름, 무늬아이비, 노랑무늬큰평의비름, 상록에기리란초, 쫄쫄형 팬드라미, 바위송 등의 세련류와 관엽식물로 피복된 벽걸이용 벽화수.



스포츠라이트 6

느리지만 품위를 가진 꽃 거북머리



아 할 것 같다.

현삼과의 다년생식물로 내한성이 매우 강해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식물이다. 토양은 너무 척박하지만 않으면 잘 생육하는데 물빠짐이 좋은 토양을 선호한다. 이 식물은 잎에도 윤기가 있어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상가치가 있으며 꽃은 7~9월에 진분홍으로 피고 하얀꽃을 피우는 흰거북머리도 있다. 품종에 따라

40~120cm까지 다양하게 자라지만 보통 60~80cm정도 자란다.

약한 반음지에도 생육은 좋으나 양지쪽을 선호한다. 식재형태는 큰 군락을 이루어 심는 것이 유리하나 한두 포기씩 작은 정원의 포인트 식물로도 좋고 절화용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이 식물은 잎에도 윤기가 있어 꽃이 피지 않은 상태에서도 관상가치가 있으며, 꽃은 7~9월에 진분홍으로 피고, 하얀꽃을 피우는 흰거북머리도 있다.



꽃이 피기 전 참 금강산 형태를 하고있어 이 꽃은 어떻게 피어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꽃이다. 그리고 꽃이 핀 모습이란 참 신기하게도 활짝 핀 것임과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 인위적에 논란 자라머리가 아직 경계심을 가지고 천천히 나타나는 모습이었을까?

헬로네(*Chelone obliqua*)라고 하기도 하는 데 '우리꽃'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명을 우리이름으로 표기했을 때 혼란과 어려움을 표시해와 거북머리라고 필자가 명명한 것임을 밝혀둔다. 학명의 *Chelone*는 그리스어의 거북머리에서 유래되었다 하며 또 이식물의 모습을 필자는 거북이 머리와 많이 닮았음을 참고로 했다. 이 거북머리는 참 저조하면서 살고 꽃이 모두 품위를 유지하는 꽃이라 해

社告

제5회 우리조경인상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제정한 우리조경인상이 올해로 제 5회를 맞이합니다.

우리꽃에서 보급한 우량의 종자와 모종을 현장에 잘 적용하여 아름답고 한 차원 높은 경관연출을 가능하게 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5회 조경인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대상에게는 중국의 조경현장, 식물원, 백두산, 우리꽃 중국현지법인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발 표 : 개별 통보 시 상 : 8월말~9월초



향기와 꽃이 모두 좋은

배초향 시리즈

포인트 식물은 물론 대군락 식재도 좋습니다.



배초향 자향



배초향



황금 배초향

자연을 담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대표적 조경식물군 20

드디어 관목시장의 주 패턴으로 등장한

조팝나무 군

대면적 군식과 포인트 식물로 좋은 관목소재

최근 많은 인기를 받는 식물종 하나가 황금조팝과 삼색조팝이 있다. 이들 식물들은 학명을 *Spiraea japonica* spp.를 쓰는데 우리의 뽕조팝과(*S. miyabei*) 참조팝(*S. fritschiana*)도 많이 닮았으나 학명의 속명이 *japonica*로 되어 보통 일본조팝군으로 분류된다.

일본조팝의 식물군은 전 세계적인 관목품종이 되어 많은 품종이 개량 되어 현재 국내에서도 많이 재배 되고 있다. 특히 '우리꽃'이 판매하고 있는 황금조팝과 삼색조팝은 최근 그 관심도나 이용성에서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꽃'이 자체적으로 교배 선발한 U진계 조팝들도 곧 출시 예정으로 있어 그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다.

조팝나무는 아주 착박한 토양에서 뚝뚝이나 웬만한 습기가 있는 곳에서도 잘 자란다. 또 심한 음지만 아니면 생육이 좋아 재배적용 폭이 매우 넓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잎을 감상하는 황금이나 삼색, 매직카펫 등과 U진 시리즈를 포함하는 무늬종은 너무 음지에 심으면 품종특성이 잘 발현되지 않는다.

절쪽과 화랑목, 주목 등이 주류 이루는 소관목 시장의 새로운 관심품종이며 관목형태로 라인이나 군식 혹은 틈사이재움목 등으로 좋고 한포기씩 포인트 식물로도 그만이다.

종류로는 황금조팝, 삼색조팝, 매직카펫, 흰무늬조팝, 붉은조팝, 흰일본조팝, 분홍일본조팝, 까실붉은조팝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U진시리즈품종 등이 있다. 



1. 흰무늬 당조팝
2. 흰꽃 알바(alba)
3. 분홍 일본조팝
4. 까실 붉은조팝(리틀프린세스)
5. 매직카펫
6. 왜성일본조팝
7. 황금조팝
8. 삼색조팝



“양귀비”

가을에 파종하세요!!

양귀비를 비롯한 수레국화, 안개초, 금영화는 가을에 파종의 적기입니다. 지금 서둘러 준비하세요

지역별 파종시기

지역	파종적기	파종량/m ²
경기북부	9월하순~10월중순	3~5g
중부권	10월초순~10월하순	
남부권	10월하순~11월중순	
제주도	11월초순~11월하순	

자연을 담은 사람들 

구입문의 : (02)3412-1281~2



2008년 관심집중 - ③

올해 새롭게 소개되어지거나 또는 기존 품종중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넘어가야 할 속근초들을 매월 4품목씩 선정, 연재하고 있다. 조경용 식물들을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편집자주-

상록의 새로운 관목 로니세라

라인식물은 물론 돌매지로 좋습니다.

로니세라는 우리에게 생소한 식물이다. 하지만 우리의 다양하지 못한 관목시장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한 식물이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 등에는 오히려 철쭉, 화양목보다 가로수림 아래 혹은 공원의 경계화단 등에 매우 많이 심겨 있다.

내한성이 강해 원래는 겨울에 상록인 식물이나 우리의 중부지방의 경우 상록성의 단풍이 들거나 낙엽이 지기도 하지만 새봄이 되면 밝고 윤기 나는 새잎을 띄워 매우 안정적인 경관을 연출한다.

현재 '우리꽃'이 확보하고 있는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잎의 광택이 뛰어나고 녹색이 좋은 녹색품종과 작은 잎의 겹면에 황금색의 무늬를 가진 종(*Lonicera nitida 'Variegata'*), 그리고 온통 황금색의 잎을 갖는 황금무늬종(*Lonicera 'Golden Bargin'*)이 있다.

가지가 매우 많고 잎은 새끼손톱크기로 가는 줄기를 따라 나란히 나고 자란다.

맹아력이 좋아 화양목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가능하며 지피피복용으로 알맞다. 일부 관리를 하지 않아도 키작은 좋은 관목상을 이루는 식물이다. 양지 뻘이나나 뻘만한 음지에서도 잘 자란다. ☺



기존의 금계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품종으로 꽃이 작고
잎도 작고 키도 작지만 꽃이 필때는 빈틈이 없는 식물이다.
꽃은 5월부터 여름을 넘기고 서리가 오는 가을까지 계속 피는데...



코스모스 일까? 금계국 일까? 애기노랑금계국

봄부터 가을까지
맑고 아름다운 이색 금계국

우리가 흔히 금계국으로 부르는 꽃은 봄이되면 어디에서고 흔히 볼 수 있는 꽃이 되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식상하다는 분들이 많다. 또 색이 너무 진해 격이 좀 떨어져있다고나 할까! '우리꽃'에서 2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맑고 작은 노란색 사계성 천사, 애기노랑금계국(*Coreopsis 'Creme Brulee'*)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의 매력적이고 귀티가 나는 금계국이다. 기존의 금계국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품종으로 꽃이 작고 잎도 작고 키도 작지만 꽃이 필때는 빈틈이 없는 식물이다.

꽃은 5월부터 여름을 넘기고 서리가 오는 가을까지 계속 피는데 물론 관리 기술이 좀 필요하긴 하다. 일차 꽃이 만개 후 지고 나면 위로부터 3~4마디 아래를 컷팅하고 상태를 보아 비료도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반적으로 종자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양양체로 번식을 하는데 불가을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새순을 삽목하기도 한다.

정말 가히 일색인 금계국을 만나보시라, 양귀비보다 더 매력적일 것이다. ☺

해바라기가 다년생?

속근해바라기

도로화단이나 공원의 보행로주변, 골프장의 큰 군락 식재에도 효과적인 새로운 식물



필자는 어느때 여름 중국에서 3대째 연꽃을 육종하는 유가화원을 찾아간 적이 있다. 안취성에서 오지인 이 회사의 연꽃 육성 논두렁에서 아주 작은 해바라기를 보았다.

처음에는 이런 곳에 해바라기를 심은 걸까? 의아해 질문했더니 토종으로 예전부터 있었던 잡초라고 한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속근생인 듯해 다시 팔았더니 다년생이었다. 그리고 그해 늦여름 네덜란드와 독일을 방문했는데 중국에서 보았던 식물과 비슷한 식물이 있었고 유럽 담당자는 속근해바라기라고 설명해 주었다. 물론 학명의 속명도 일년생 해바라기와 같은 *Helianthus*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말 해바라기임은 틀림이 없었다.

그런데 유럽에서 본 속근 해바라기는 키가 매우 커 거의 120~150cm가 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꽃'에서 판매를 시작하는 속근해바라기는 60~80cm 정도로 세계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종 중 가장 작은 키를 가진 속근해바라기이다. 현재 두가지 품종으로 검꽃과 홑꽃으로 나뉜다.

속근해바라기는 생명력이 강하고 땅속 줄기를 뻗어 번식된다. 토양은 건조지나 습지를 별로 가리지 않는 않지만 물배집이 좋은 비옥한 토양에서는 줄기도 굵어 지고 키도 좀더 커지는 특성이 있으며 꽃은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직경 7~10cm 정도의 해바라기꽃으로는 작은 노란꽃을 피운다.

도로가에 일색하거나 대면적에 대해 군락을 이루어 심고 다른 종류와 혼합하거나 특히 복식화와 혼성하여 심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

천상의 아름다운 꽃방석을 연출하는 눈하늘꽃

양지의 건조지는 물론 암석 가든에도 좋은 피복식물

7~10월에 걸쳐 파랑의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는...
가을의 단풍까지도 아름다운 환상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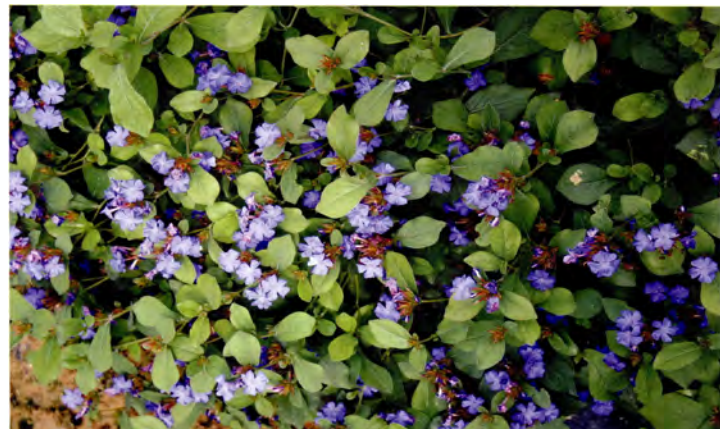


눈하늘꽃(*Cerastium plumbaginoides*)

은 필자가 한국명을 붙였음을 말한다. 보통 풀을 비교하여 열대지방의 관목이 있는데 같은 껌질 경이과이지만 종명이 다른 유사종으로 이 식물과는 다르다. 눈하늘꽃은 인도유럽계고로 하늘꽃으로 번역한 자료가 있어 다른긴 하지만 땅에 누워 자라는 특성이 있어 눈하늘꽃으로 명명했음을 밝혀둔다.

이 꽃은 3년동안 재배관찰하고 내한성평가, 화기, 화색, 번식방법 등을 조사한 결과 매우 유망하고 아름다운 식물임이 증명되어 사랑하게 되었다. 우선 이식물은 내한성에 있어서 매우 강하여 함양되고있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졌다. 땅속줄기로 빠르게 넓게 포기를 형성하여 방석모양을 이루어 7월부터 10월에 걸쳐 파랑의 아름다운 꽃으로 덮는데 특히 가을의 단풍까지도 너무 아름다워 정말 환상적인 꽃이다.

도로의 양지, 중앙분리대 혹은 넓은 면적의 토양피복을 요하는 장소 혹은 암석가든이나 골짜기의 범람에 봄의 꽃잔치를 연출하며 여름, 가을을 수놓을 꽃으로 적용하면 매우 좋은 식물이다. ☺



현장리포트

영원한 꽃의 도시, 파주

경기도 지역축제 1위 150만명 참가 파주 심학산 돌꽃이 꽃 축제 현장으로..



붉디붉은 꽃 양귀비와 푸른 물빛의 수레국화, 뱃가엔 수양버들, 울기종이 집들이 모인 마을 길을 따라 매반 뚝과 금영화가 고개를 내밀고, 세하얀 안개와 유채꽃으로 물들은 곳..

파주에 위치한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축제기간 : 5월31일 ~ 6월8일)는 파주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와 해외에서 찾아온 관람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축제기간동안 작년 관람객의 3배인 150만 명의 관람객을 맞이하는 큰 쾌거를 이루었다.

심학산 돌꽃이 꽃 축제는 파주시가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적 꽃 축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에 '우리꽃'과 협력속에서 작년에 처음 개최되었으며, 약 150여종의 수목 송이 꽃이 꽃마을 15만여 평의 들판을 각종 야생



화와 초화류들로 화려하게 물들이며 관람객과 주민들의 호평을 크게 받아왔다.

이 축제 현장의 특이함 만한 점이라면 전시장을 지어 꽃을 전시하는 타 지역의 꽃 축제와는 달리 마을과 산기슭 22만ha(2만평)에 야생화 150종류 30만 본을 심어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었다.

비닐하우스가 아닌 자연 상태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파주시는 1년 동안 공을 들였다고 한다. 축제 기간 동안 언제든 봄소리를 터트리게 하기 위해 '우리꽃'에서는 양귀비는 9~10월, 안개꽃은 3월 등 꽃마다 파종시기에 맞춰 심원을 기온이 파종하였고 그 이후에 파주시에서도 꾸준한 관리하였다. 화려한 꽃이 주는 아름다운의 이면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숨은 노력과 땀방울이 녹아 내려 있었는지 보는 마음이 숙연해진다.

관람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꽃 대관속의 작은 동산으로 이어지는 '돌꽃이 꽃마을'은 들어시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꽃 대림의 화려함에 감동받은 탄성을 터트리기에 충분해 보였다. 형형색색의 야생 화들로 꽃동산을 이룬 언덕은 마치 꽃 무지개처럼

여러 색깔의 라인을 아래내고 있었으며, 붉은빛으로 가득 매운 들란의 양귀비는 녹아내림 또 뜨거운 태양아래에서도 렌즈에 담아가려는 관람객들의 눈과 손을 바빠 움직이게 만들고 있었다.

양귀비꽃과 유채꽃, 수레국화, 금영화, 안개초 등 150여종의 야생화와 초화류가 심어져 있는 꽃대림과 하얀 드레스 자락 같은 안개초의 흰 꽃무리를 두른 다랑초꽃밭, 은은하며 아늑히 피어나는 꽃말씀의 너른 들란 사이로 마치 붉은 카펫을 깔아 놓은 것처럼 절정의 양귀비꽃이 환상적으로 일렁이고 있었다. 보라빛의 수레국화도 선명하게 한뼘을 헤내고 있어 온 사람 꽃 속에 묻혀, 시간 가는 줄 모든 채 넋을 놓게 만들었다. 여기 저기 출사 팀들은 자기만의 풍경을 담아내려고 연속의 셔터를 누르며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돌꽃이 꽃마을로 들어가는 길..

마을 안으로 들어가 작은 길을 따라 마을 곳곳의 아기자기하게 조성된 아름다운 꽃들의 모습은 그 조화로움과 향긋한 공기에 저절로 '야, 이곳에 살고 싶다.'는 탄성이 나오게 만들었다.

특히 다랑초밭과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려 만든 꽃마당과 흙판단지 뒤편으로 난 시원스레 펼쳐진 습지원의 모습은 도시민들이 생활의 긴장감을 잠시 떨쳐버리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휴식의 장소로 손색이 없어 보였다.

마을의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마을의 지형과 농촌 주택의 풍경 등과 조화를 이루는 꽃마을의 모습은 여타 다른 꽃 축제 장소와는 달리 정겹고 편안한 느낌을 전



해주었다.

따사로온 햇살과 들란에 만발한 꽃들, 잠시였지만 삭막한 도시원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빛깔과 꽃의 향기를 가득 담은 심학산 돌꽃이 꽃마을에서의 산책은 눈과 마음과 생동하는 에너지에 충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곳 파주 심학산 돌꽃이 꽃 축제가 꽃과 자연과 하나 되는 세계적인 꽃마을축제로 발전될 수 있기를, 그리고 내년 3회 축제에는 또 어떤 장관 어떤 내용으로 우리의 감성을 만족 시켜 줄지 기대를 전심으로 기대해진다.

봄을 알리는 최고의 아름다움..가을식재

“추식구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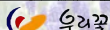
때를 놓치지 말고 준비하세요!!

이른 봄 튜립과 수선화가 당신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추식구근

품목	화기(월)	화색	키(cm)	식재수/m	식재깊이(cm)	주최최소량(개)
튤립	4-5월	혼합	30-50	30-50	10	1000
수선화	4-5월	흰,노랑	20-40	25-50	10	500
무스카리	4-5월	보라	15	120	5	1000
크로커스	3-4월	혼합	10	100	5	1000

작업을 맡은 사람들



구입문의 : 02)3412-1281~2

현장히트품종

내년봄을 미리 준비한다

털수염풀

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경관입니다.



바람이 불면 보리가 일렁이듯이, 해가 비추면 연두색의 아름다운 여인의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되고, 석양이 지면 황금색 금빛 바다가 된다.

털수염풀이 소개되고 첫해가 되었다.

많은 지역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한결 같이 표현하는 바는 비슷하다.

“이런 것이 진짜자연인 경관연출이다.”

바람이 불면 보리가 일렁이듯이, 해가 비추면 연두색의 아름다운 여인의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되고, 석양이 지면 황금색 금빛 바다가 된다.

올해 정관 성황리에 끝난 함평공촌나비엑스포장에서 부식물원에서 보여준 털수염풀의 진가를 느낀 분들은 이제 하나의 패러다임이 될 공산이 크다. 아름다운 꽃이 아니면서 이런 고급 느낌을 연출할 줄 아는 털수염풀의 진가는 용가읍에 심어야 발휘된다. 대면적의 열식이나 보행로 경계식물 등으로 활용하면 좋고 꽃이 지고 난 후 자르지 말고 이른바 사순이 나오기 전에 잘라주는 것이 좋다.

로봇잡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심어야 더욱 효과적이다. 언덕이라면 더욱 좋을 것이다.



붉은 가을의 꽃피를 잇는다

숙근아스타 “제니”

초가을을 붉게 맞이하는 가을꽃의 화신

숙근아스타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고 '우리꽃'에서 현재 보유 판매하고 있는 20여종 외에 내년부터 시판에 들어가는 신품종 까지 합하면 아스타만 가지고도 여름가을 정원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품종이 많은 식물군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제니”는 '우리꽃'의 초기 품종으로 많은 판매가 있었으나 아직도 꾸준한 인기를 받



고 있는 이유가 있다.

우선 숙근아스타의 왜성종으로 비교적 원색의 빨강에 가까운 진한 분홍의 색으로 꽃이 크고 깔끔한 특징으로 만개하면 꽃의 평원이 된다.

때문에 폭 2~3m로 길게 매치하면 아주 뚜렷하고 강렬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의 화기가 맞는 식물과 라인을 주어 식재하면 효과적일 수 있고 특히 가을 축제장 주변에 식재를 하면 효과적이다.

보통 둔치 등은 일년에 한번 정도 물에 잠기게 되어 이런 곳은 여름꽃 보다는 봄과 가을 꽃이 좋은데 이 아스타는 물에 잠겨 줄기가 쓸려가더라도 바로 싹을 내 가을이 오면 좋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넓은 둔치식재도 고려해 볼만하고 특히 코스모스 등을 둔지에서 기원하는 경우 라인이나 경계식물로도 안정맞춤인 식재이다. 키는 40~50cm정도인데 8월부 터 9월에 개화한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가을 화려한 꽃의 바람
아스타 '노비시리즈'

하양, 분홍, 보라의 절묘한 고급품
지금 가을의 화려함을 준비하십시오.

녹색의 스프레이
알케밀라

잎과 꽃이 고급스러운 라인 식물
뛰지 않는 고급소재, 라인식물은 물론 다른 식물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바탕식물로도 좋습니다.

가을에 더욱 빛나는 별
하늘용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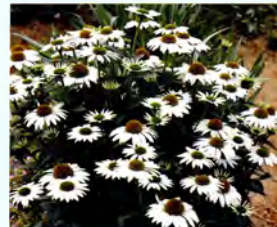
서리가 내려도 꽃이 피는 늦가을 소재
1년을 키워야 만족합니다.

패랭이의 신화
상록잔디패랭이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겨울엔 상록
지금 겨울과 내년 1년을 준비하십시오.

화병에 꽃아도 좋은 꽃
에키나 '스노우'

어떤 식물과도 조화로운 소재
지금이 정원을 바꿀 때입니다.

가을 향수, 가을 연출
숙근아네모네

코스모스보다 더 가을 느낌식물
우리정서에 알맞은 가을 최고의 새로운
소재입니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갈색 가을연출의 자신감
갈사초

갈색의 상록사초
언제 어느 곳이나 가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면적 정갈한 품위
몰리니아 '무어'

가을에 펼쳐는 군무
정확한 각을 맞추는 식재가 중요합니다.

눈이 와도 뽀뽀
핑의비름 '만추'

점점 더 강한 붉은색
직립형 세덤 중 가장 강합니다.

레드킹 이후 최고의 빨간색 꽃잔디
꽃잔디 '레드썬'

레드킹 이후 최고의 빨간색 꽃잔디
이제 꽃잔디의 흰색부터 빨강까지 모두
갖추었습니다.

봄의 화신, 기다림
할미꽃 '불가리스'

하양, 빨강, 보라색
이런 봄꽃은 지금 심어야 좋습니다.

겨울에 표현되는 힘
유카 '브라이트에썬'

5~6월의 백색꽃의 아름다움
아름다운 무늬와 기품있는 포인트 식물
입니다.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24

낮은 물속의 무법 신사, 무늬가 시원한 “무늬부들”



세로의 하얀 무늬를 갖고 있어 잎 자체로도 관상가치가 뛰어난 소재이다.

우리가 흔히 부들을 생각할 때 부들부들 뜬다고 했는데 부들이 부들부들 뜬 것을 보지 못해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부들의 종자가 익어 부푼이 오르는 모습에서 오히려 아늑하다. 이 부들에 세로로 하얀 무늬를 이루는 품종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무늬부들은 일반적인 부들의 생육특성과 비슷하므로 따로 관리할 것은 없다. 다만 일반적인 부들은 관리를 잘못하여 연못전체가 부들로 덮여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것을 종종보았다. 때문에 섬계지가 원하는 면적만큼만 항상 풀위를 지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부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연꽃, 수련, 큰고랭이, 창포 등 대부분의 수생식물의 경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 항상 주의할 기우여야 한다. 알맞은 규격의 용기를 식재 연못에 넣어 식재하면 자기 마음대로 쉽게 조절할 수도 있다.

이제 물속에도 붉은 연꽃과 무늬부들의 시원한, 그리고 황금빛의 끝나까지 저마다의 아름다운 유색의 물경을 만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

그래스스케이프 19

호랑이를 닮았나 억새 “호피무늬”

군식은 물론 독립 포인트 식물로도 좋습니다.

“우리꽃”에서 집중적인 그래스 종류에 대한 연구와 증식을 하는 것은 다양한 조경현장의 가능성 증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조경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대량 증식에 들어간 호피무늬 억새의 경우는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인 식물의 대부분의 무늬는 세로형인데 반하여 호피무늬억새는 가로형의 띠를 무늬로 보인다.

현재 “우리꽃”이 사판하고 있는 억새종류 중 무늬 억새, 모닝라이트, 그라나이트 등이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 조경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 대량 증식에 들어간 호피무늬 억새의 경우는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인 식물의 대부분의 무늬는 세로형인데 반하여 호피무늬억새는 가로형의 띠를 무늬로 보인다.

특성은 일반 참어새의 특성과 비슷하고 다만 때가 더 곧추서는 것과 잎의 길이가 좀 짧아 좀더 직선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다르다. 풀위가 있고 특이성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을 제품임에 틀림없다. ☺



무늬종 시리즈 25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블루의 잎과 빨강 꽃의 조화 평의비름 “파랑잎”

군식과 포인트식물로 분경용으로도 좋습니다.



매트형과 직립형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갖는 식물로 포기 형성이 좋으면서도 직립형과 같이 물러짐이 없어 인정되고 깔끔하다.

잎의 파랑색 느낌과 빨강의 꽃이 어울려 최상의 정원을 이룬다.



우리가 흔히 세덤이라 하여 건조에 강한 특성으로 주로 옥상이나 극건조지에 많이 이용되는 식물군이 있다. 그러나 이 세덤군도 일반적인 생육형태로 분류가 가능한데 우선 돌나물과 같은 포복형과 금강애기나리나와 같은 매트형,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줄기를 튼튼히 내고 직립하는 큰평의비름과 같은 직립형이 있다.

파랑잎평의비름은 매트형과 직립형의 중간 정도의 특성을 갖는 식물로 포기 형성이 좋으면서도 직립형과 같이 물러짐이 없어 인정되고 깔끔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잎의 파랑색 느낌과 빨강의 꽃이 어울리면 최상의 정원을 이룬다.

옥상이나 암석지 등의 극건조지 뿐만 아니라 일반지에서도 생육이 좋아 특별히 배수가 불량하거나 침수지역만 아니라면 좋은 생육의 형태를 보인다. ☺

Q 봄에 양귀비를 보려고 하는데 언제 파종을 해야 하나요?

A 양귀비는 월년생 식물입니다. 월년생이라 하고 하면 보통 가을에 받아들이고 자라다가 성장을 멈추고 겨울을 보내고 봄에 다시 성장을 하여 꽃을 피우는 식물을 말합니다. 수레국화, 큰고랭이, 안개초, 양귀비꽃, 향부, 금영화, 꽃아마리 등 이와 같은 식물입니다. 예전부터 흔히 볼 수 있었던 보리, 밀, 벼도 이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

그런데 월년생식물들은 무엇보다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파종시기를 잘 맞추어 파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른 시기에 파종을 하거나 너무 늦은 시기에 파종을 하는 것은 모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 시기에 파종을 할 경우는 영양생장을 너무 많이 해서 겨울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너무 늦게 파종을 하면 당년에 발아가 되지 않고 이듬해에 발아할 하기 때문에 다른 잡초와 경쟁에서 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북부, 중부지방은 9월말에서 늦어도 10월 하순까지 파종을 하는 것이 좋으며, 남부지방은 10월 중순에서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파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파종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여름철에 포트를 식재하거나 파종을 해서 가을철에 볼 수 있는 꽃은 무엇이었을까요?

A 가을철은 봄과 여름에 비하여 볼 수 있는 꽃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가을꽃을 국화와 코스모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좋은 식물들이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쓰임이 많지 않습니다.

코스모스와 같이 파종을 하여 볼 수 있는 식물은 황화코스모스, 메밀, 봉선초, 꽃담배 등이 있습니다. 늦어도 8월 초까지 파종을 할 경우 9월 중순부터는 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종보다도 묘종을 식재하면 꽃을 볼 수 있는 식물은 더욱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화의 구절초, 분홍구절초, 아스타, 개량국화, 산국, 해반국화, 해국, 감국 ‘열든불’ 등이 있으며 국화외에는 종로, 숙근국화, 아네모네, 큰평의비름 ‘만주’, 하늘유망, 향, 숙근해바라기 등이 있습니다.

Q 예전에 우리꽃은 신종종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A 우리꽃에서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이며 많은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이 나왔다고 무조건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후에 잘 살 수 있는지? 월동은 가능한지? 장마기에도 문제가 없는지? 등 체크를 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모든 조건들이 맞으면 우리꽃은 고객들에게 신종종을 선보입니다.

을 가을 이전연구소를 찾아 주십시오.

Q 벽화수는 벽에서 식물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벽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대부분의 식물들은 수직벽에서도 자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벽에서 살 수 있는 식생기반재가 없었기 때문에 보통 벽에서는 식물이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생각들이 벽화수를 통해서 바뀔 것입니다.

신에 가보면 절벽에서 자라는 나무와 꽃을 볼 수 있으며, 경사가 심한 법면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탈과 비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인하여 쓰러진 식물들이 다시 위를 보며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들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하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수직벽에서도 살 수 있는 식물이 아니라 식생기반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다년생식물들이 살 수 있는 기반재가 벽화수입니다. ☺



뷰가이드 4 외국식물원편-2

위슬리 가든(Wisley Garden)



식물원으로서의 위슬리는 1956년 정도의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위슬리 가든은 당시 런던의 유명한 대가오원을 피하기 위해서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게 되었다.

위슬리 가든은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30여 km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 그 면적은 97헥타에 이르며, 직원은 약150여명 정도로 일년에 방문객이 75만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경

식물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물원이다.

위슬리 가든의 시조로는 1878년에 당대의 사업가이자 발명가였으며, 원예가이기도 했던 조지 퍼거슨 윌슨(George Ferguson Wilson)이 생육시키기에 어려운 식물들을 기르려는 생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여 정원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백합류, 붓꽃류, 프리마라 및 수생식물을 위주로 수집·식재 하였다. 1903년에 이르러 윌슨은 세상을 떠나고, 토마스 한버리(Thomas Hanbury)씨가 부지를 매입하여 왕립원예협회의 재산으로 기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위슬리 가든은 왕립 원예협회의 주관으로 철저하게 회원제로 운영된다.

즉 회원들은 무로입장을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열리는 각종 원예전시회(Horticultural Show), 강연 및 국내 및 국외의 우수한 식물원 등지를 방문하는 장·단기 여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위슬리 가든은 현재 조경식물의 자원수집을 위한 국가의 대표기관(National Collection)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슬리 가든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설계물 재외원예에·조경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1년 코스의 인턴제도(Internship)를 운영하고 있는데, 입학정원은 약 30여명 정도로, 대부분이 기술사 생활을 하거나 통근하는 사람도 있으며, 일하고 배우는 체제를 확립해 두고 있다. 이 코스의 이수자들은 원예사, 원예기술사 및 원예기술사 자격을 각각 취득하게 되는데, 왕립 큐우 식물원의 원예학교(School of Horticulture)에서 운영하는 단기학위(Diploma) 코스의 수료자와 함께 실무 분야에서 대행증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스를 통하여 이미 3명의 전문인력이

훈련과정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올해에 또 한 명의 연수 계획이 확정된 상태에 있다.

일반시민을 위한 전시를 위주로 하고 있는 위슬리 가든은 일반 주택정원에서 응용성과 실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실용적인 정원형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조경식물의 실제적인 모든 면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각 장르별로 구성해 놓았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 뿐만 아니라 계절별, 월별, 요일별로 1년 간의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위슬리 가든은 협업수원, 여름식물용 정원, 장미식물종 전시원, 겨울식물용 정원, 채소전시원, 유심수원, 고산식물원, 암석원, 화분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위슬리 가든은 1년 사계절의 이용뿐만 아니라 각 정원마다의 특성을 두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게 만드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뚜렷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광범위한 면적을 사용하기 힘든 국내사정에 위슬리 가든은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종자프로젝트 13 새로운 봄의 전령 영채

4월 15일 맑은 노랑의 봄을 환영하는 영채가 경기 북부에 피었다. 특히 추웠던 겨울을 넘기고 봄의 전령으로 영채가 피었다.

보통 유채는 경기이북에는 월동이 어려워 이른 봄에 뿌려야 하고 한평의 들녘비가 오는 봄에는 쓰러져 꽃이 오래 가지 못한다. 그리고 꽃이 지면 관상 가치가 떨어지며 빨리 다른 식물로 교체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모 두 해결한 우리꽃 유채보다 내한성 강, 쓰러짐 없음, 일주일 빨리 개화하는 새로운 식물

로 2008년 가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영채가 2009년 봄을 맞아 준비를 마쳤다.

영채는 유채와는 다른 작물이다. 기름을 짜는 것도 같고 봄 일찍 노란 꽃을 피우는 것도 유채와 같다. 특히 봄동이라 하여 먹는 채소로서의 용도로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꽃에서 선발한 영채는 키가 30~50cm로 작고 경기 이북에서 월동가능하며 4월 15일을 전후해서 개화한다. 꽃은 한 달을 피어 개화 기간이 길고 꽃이 진 후 맺는 열매고투리가 오히려 꽃이 핀 경관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특히 봄부터 채소로 갈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소량씩 파종하여 이용하면 그 맛도 일품이다.

흔히 뿌리거나 종파종하면 되고 종자량은 100평방미터당 1kg~2kg을 기준으로 하여 가급적 수 있다.

경기 북부에 유채가 월동이 되지 않는 지방에서 파종할 경우 10월 중순경 뿌리 뿌리서 식물이 붙을 기준 5매이상이 나온 후 겨울을 맞으면 월동력이 더 강해진다. 따라서 경기 북부나 남쪽의 산간지역에 뿌릴 때는 너무 늦게 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책박지에

도 잘라지던 밭이 3년을 재배할 때에 30kg을 기준으로 2008년 가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영채가 2009년 봄을 맞아 준비를 마쳤다.

영채는 유채와는 다른 작물이다. 기름을 짜는 것도 같고 봄 일찍 노란 꽃을 피우는 것도 유채와 같다. 특히 봄동이라 하여 먹는 채소로서의 용도로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꽃에서 선발한 영채는 키가 30~50cm로 작고 경기 이북에서 월동가능하며 4월 15일을 전후해서 개화한다. 꽃은 한 달을 피어 개화 기간이 길고 꽃이 진 후 맺는 열매고투리가 오히려 꽃이 핀 경관보다 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다.

특히 봄부터 채소로 갈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소량씩 파종하여 이용하면 그 맛도 일품이다.

특히 봄부터 채소로 갈라 여름에도 가을에도 계속 소량씩 파종하여 이용하면 그 맛도 일품이다.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5

신선의 약재 맥문동



먹는 방법

1. 맥문동 차 달여 마시는 방법

- 맥문동을 차로 달여 마실 경우엔 맥문동 15~20g과 물 500ml의 비율로 달인다.
- 물의 양이 2/3로 될때까지 달인다.
- 이렇게 만들어진 330ml가 하루에 마시는 양이다.

- 하루 6~12g을 달인액, 알약, 기루약 형태로 먹는다.(물약은 500ml)
- 맥문동은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장이 냉한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2.술로 달여 먹는 방법

- 잘게 썰어 소주에 담가 2개월 이상 숙고 한

곳에 두었다가 아침 저녁 소주잔으로 한두잔 마시면 된다.

- 지방간장 효험이 있다 하며 몸이 찝찝한 구석이 사라진다고 한다.
- 3. 꿀을 타서 음료수로 마시는 방법

당아뿌리를 잘게 잘라 10배 양의 물로 달여 꿀을 타서 마신다.

- 4. 달고마와 함께 요리하면 체력 강화와 피로 회복 효과 및 당뇨나 소실된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 효과가 있다.
- 5. 감초를 넣어 달여 마시는 방법

맥문동 10g 감초3g에 물 600ml를 붓고 물이 절반이 되도록 40분 이상 달인 후, 하루 3회로 나누어 수시로 마신다.

맥문동은 외떡잎식물 백합목 백합과의 상록 여러해살이풀로 꽃은 연한 보라색이며 6~7월에 잎 사이에서 길게 만들어진 꽃자루 위에 무리지어 핀다. 잎이 겨울에도 시들지 않고 푸른빛을 지니고 있어 공원이나 화단의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다.

이용방법은 땅속에 들어 있는 수염뿌리를 채취해서 땅콩처럼 매달린 뿌리를 떼내어 물로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예로부터 맥문동은 폐를 보하고 강장효과가 뛰어난 약재로 알려져 있으며, 성질이 차가운 편에 속하므로, 주로 폐가 열한 경우 식재주는 효과로서 감기, 기침 등을 치료할 때 쓰인다.

강장, 감심, 이노작용에 효과

효능으로는 감기, 기침, 천식, 백혈병 등이나 분비물이 적은 헛기침, 담뇨변, 변비, 가래가 잘 안 없어지는 기침 등에 맥문동을 하루 10그램씩 물로 달여 마시면 좋고, 심장병과 병후의 지양강장 목적으로도 이용된다.



농업적 경관, 휴식, 낭만이 있는 곳, 포천뷰식물원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제 4회 양귀비대축제가 열렸다. 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해서 축제를 빛내주었고 다양한 경험과 경관, 휴식을 느끼고 갔다.

어침 일찍부터 많은 사진 작가들이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었고 그림 동화책 회원 분들도 올해도 변화없이 방문해서 주어서 사생대회를 방불케 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천문경관이 열렸고 중간 중간에 일동 중학교 사물놀이패가 와서 축제의 흥을 돋아 주었다.

KBS 아침영성팀과 무한지대Q, 그리고 SBS 뉴스에도 뷰식물원이 소개가 되었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과 블로그, 인터넷뉴스를 비롯한 온라인에서도 뷰식물원이 단연 화제가 되었다. 양귀비축제를 함께 즐기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린다.

7월에는 '백화과 후르츠의 민낯'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귀비축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늦은 장마폭우로 인해 식물원 주변이 흙이 파이고 일부 식물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지만 아름다운 식물원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직원들이 열심히 땅을 정리하고 있다.

8월에는 무지개 꽃동산축제라는 주제로 양귀비 들판과 무지개 등산에 파여있는 후르츠 등과 그라스 정원에 펼쳐지는 부처꽃, 꽃말의고리, 모나리, 아스타 등이 예쁜 꽃 전설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연인이 함께 와서 '옥수수밭이 채워' 행사를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추억이 될 것이다. 시원한 여름을 위해 7만 캐스캐이드 연못에 분수가 설치되었고 천도광장에 분수 타일이 만들어졌다.

또한 벚꽃 수산에서는 여름특별 메뉴인 한방 삼계탕, 물냉면, 비빔냉면, 비빔국수, 비빔밥 등이 준비되었고 그라스에서는 이천분장에서 직접 제빵한 빵의 비빔, 감국, 엑세루, 아스타의 식물과 정원 율화를 판매하고 있으며, 양귀비하우스에서는 인테리어 소품, 향기 제품, 허브차, 그리고 채취(원기 바나나, 향주머니, 완초)를 할 수 있다. 양귀비씨앗, 연 씨앗과 혼합종 씨앗의 판매 또한 요즘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구입분은 뷰식물원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9월 한달 동안은 고개 갑사 이벤트로 입장객 전원에게 올해 뷰식물원에서 직접 수확한 양귀비씨앗을 증정한다.

여름에는 주말에 연경 오프로드 8시간을 하고 있으며 저녁식사 예약사에는 오후 4시부터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10월 3일부터 11월 9일까지는 '가을 아스타(국화) 축제'와 '여석 그라스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축제 기간 중에 구경(국화), 수선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여름과 가을에도 자연과 어울려서 꽃이 가장 많고 아름다운 경관식물원이 되기 위해 오늘도 뷰가꾸름을 땅을 쏟고 있다. 오셔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

이 코너는 경관식물원을 포괄하는 포천뷰식물원의 월별 주요 경관과 식물원 내의 이벤트 및 진행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국내 식물원 중에서 꽃이 가장 많고
연인, 가족이 와서 편안함을 느끼고,
꽃밭에서 휴식을 만끽하기에 가장 좋은 곳!
바로 포천뷰식물원



포천 뷰식물원
The View Botanic Garden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441-1
안 내 : 031) 534-1136
서울사무소 : 02) 3412-1281~2



우리꽃과 함께 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우리꽃은 야생화 및 녹화용 종묘 전문회사입니다. 우리꽃은 가장 자연적인 것에 기본을 둔 환경녹화, 그리고 생태조경의 완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선된 야생화 씨앗, 향토녹화용 종자, 산립 종자 그리고 지피식물까지 조경에 필요한 모든 종묘를 생산 유통합니다.

지회사로는

(주)엘비라이프는, 조경 식재, 관리, 벚꽃수

(주)포천뷰식물원은, 식물원, 레저

중국전지법인 일조초생자 원예유원공사는, 식물원, 레저가 있습니다.

역할 있고 도전정신이 강한 인재를 가족으로 모집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생활과 지름길 기다립니다.

1. 모집분야: 영암부경(신입), 재무관리부(경력), 생산부(이천농장/연수), 식재관리(경역/신입), 정원디자인, 조경생(신입/경력)
우리꽃에 강한 식물의 생리, 생태를 배우고 자신의 창조물에 녹여낼 수 있는 분, 그래픽, CAD 가능자, 미술, 산업디자인 전공자 우대

2. 인 원: 0명

3. 제출서류: 이력서1부,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등본1부, 관련자격증 사본, 최종학력 성적증명서1부
(2차 면접시 제출)

4.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추후개별통보

2차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5. 접 수: E-mail 접수 (yonsseu@naver.com)

6. 문의사항/담당자: 우리꽃 관리부 김기환 02.3412.1281~2

전공자 우대

